

중화권 대학 전공자용 교재 개발을 위하여
-대만 현황을 중심으로-

박병선

1. 들어가며

이번 발표에서는 외국 대학에서도 전공으로서의 한국어문 교육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따르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 개발에 대해 대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학 전공 교육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어문 전공 학생이 갖춰야할 한국어 활용능력, 문학 감상 및 분석 능력, 교차 문화 이해 능력, 사고와 창조 능력, 연구 능력, 자기주도 학습과 실천 능력”등의 구체적인 요구와 수요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60년이 넘는 역사와 더불어 한국어 학습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대만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입시에 포함되지도 않는 한국어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도 계속 증가 추세다. 취미로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도 인구대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만 한국어 교육의 기원을 가진 정치대학은 1956년 동방어문학과 한국어 전공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 학과로 독립하였고 2012년부터 석사과정도 시작하여 현재 62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1963년에는 타이베이 중화문화대학에서도 동방어문학과 한국어로 전공이 설립되어 1994년에 독립 학과로 발전하였고 2000년부터 석사과정을 시작하였다. 1956년 이후 반세기가 넘게 이렇게 타이베이에 위치한 두 대학에서만 한국어학과가 운영되다가, 2008년에 대만 남부 가오슝의 국립가오슝대학에 동방어문학과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가 6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어문학 전공자를 위한 교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교재 개발 역사와 온라인 교재 개발

2.1 한국어 교재의 역사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1956년에 정치대학에 한국어 전공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기에는 한국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재 내용을 등사지에 옮겨 쓴 것이나 교수가 편찬한 내용을 등사해서 나온 등사판 교재를 사용한 시기였다.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재를 갖추지 못하였고 개별

교수가 수업에 필요한 것을 임의로 엮은 단편적인 자료를 등사해서 썼다.

두 번째 시기는 교수가 편찬한 내용물을 한국의 활판인쇄로 나온 교재를 사용한 시기였다. 이원식(李元植) 교수가 1968 년에 편찬한 <韓語入門>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서설(序說)에서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하고 내용 구성은 발음편과 해석편으로 나누어 엮었다. 발음편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분석, 발음 변화를 설명하면서 예문을 제시하였다. 해석편에는 조사와 어미 활용, 존경과 겸양법, 보조어간, 접두사, 접미사, 관용어 등을 나누어 설명하였고, 각각의 내용에 적당한 예문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예문을 한국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 교재는 당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을 때 편찬된 것으로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교육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아쉬운 점이 컸다. 발음과 문법에 치중하여 개발된 이 교재는 한국어의 언어학적 일부 지식만을 다루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회화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재를 복사하고 모은 복사판 교재를 사용한 시기였다. 문화대학 임추산 교수가 1972 년에 펴낸 <韓語讀本>이 이에 속한다. 상하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권은 대학 1, 2 학년의 초급 한국어 교재로 사용하였고 하권은 3, 4 학년 독본 교재로 사용하였다. 상권의 내용은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회화와 문법, 문형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엮은 것이다. 하권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산문, 소설, 시, 일기, 기행문, 논문, 기타 실용문과 희극 등 각종 장르의 문체를 익힐 수 있도록 엮은 것이다. 이러한 교재는 한국인의 모국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나 설명이 체지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오롯이 교수자의 강의에만 의존하였다. 그리고 이 교재 또한 실용적인 회화 등의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독해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직접 한국에서 활판 타자기를 도입하여 찍어낸 교재를 사용한 시기였다. 진축삼 교수가 펴낸 <韓語會話>나 1979 년에 강신항 교수가 쓴 <韓語語法>이 대만에서 활판 타자기로 제작한 것이다. 이 교재들도 발음과 문법에 치중한 내용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학습자가 중국어 문법적 특성과 연관시켜 한국어를 이해하게 엮었다. 이전 교재보다는 발전된 형태이지만 문법 교육 위주의 구성이라는 한계는 계속 안고 있었다.

그밖에 그리고 명도언어연구원에서 나온 초기의 한국어 교재와 황관문화교육기금회(皇冠文化教育基金會)에서 펴낸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등이 있었다. 이 교재들은 중급 이상의 회화 학습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주로 대만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에 의해 개발된 문법 위주의 교재가 1980 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책으로 편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교수들이 필요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였다. 비록 교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였지만,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지 못하여 효과적인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나 방법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과 과정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의 등장으로 다양한 교재가 다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양인중 교수가 펴낸 <韓語語法> <韓語讀本> <階梯韓語> <韓語方塊文選> 등과 왕준(王俊) 교수의 <韓國語> <基礎韓語會話>, 임명덕(林明德) 교수가 펴낸 <初級韓語句形>, 채련강(蔡連康) 교수가 펴낸 <中級韓語讀本> <韓譯新聞社論選粹>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활발하여 졌고, 여러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에서 한국 개발 교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나온 각종 시리즈 교재 외 HOLLYM 출판사의 <Functional Korean>, <Speaking Korean I・II>, 명도언어연구원의 <Myöngdo's Korean>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전의 교재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였고, 독본 위주의 교재에서 벗어나 테이프, CD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회화 학습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 교재는 다양한 일상 회화 내용을 풍부하게 싣고 있으며, 각 단원의 내용 배경이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단계별로 편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에도 일부 교재는 대만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지만 대분의 주요 교재는 아직도 한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 현지의 특성을 더욱 반영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대만 현지에서도 교재를 꾸준히 편찬하였다. 여기서는 증천부(2000)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그 시기에 대만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를 정리한 것이다.

문법 : 現代韓語基礎句型研究(현대 한국어 기초문형연구 , 王俊 편저, 1983)
韓語語法(한국어 문법, 楊人從편저, 1986)
現代韓國語助詞(현대 한국어 조사, 王俊편저, 1989)
韓語語音學(한국어 음운학, 王俊편저, 1993)
韓語句法(한국어 문형, 王俊편저, 1995)
輕鬆學韓語-句型韓語 1-6(쉽게 배우는 한국어-문형 한국어 1-6, 林明德편저 1998)

독해 : 韓語讀本(한국어 독본, 王俊편저, 1983)
韓語方塊文選(한국어 칼럼 선독, 楊人從편저, 1988)
韓語讀本-上下(한국어 독본-상하, 楊人從편저, 1991)

韓國語(한국어, 王俊편저, 1993)
韓語翻譯與解讀(한국어 번역과 해독, 王俊편저, 1994)
中級韓語讀本(중급 한국어 독본, 蔡連康편저, 1997)
綜合韓國語(종합 한국어, 王俊편저, 2000)

사전류 : 韓語擬聲・擬態語 (한국어 의성・의태어, 張介宗・邊成圭 편, 1992)

회화 : 基礎韓語會話(기초한국어회화, 王俊편저, 1992)
中級韓語會話(중급한국어회화, 曾天富편저, 1994)
高級韓語會話(고급한국어회화, 王俊편저, 1996)

실습 : 韓國語視聽教材Ⅲ(한국어 시청교재 Ⅲ, 曾天富편저, 1999)

이들 교재는 주로 교수자의 경험과 학습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이론이나 교재 개발의 학술적 배경보다는 저자의 한국어 교육 경험에 크게 의존하였고, 체계성보다는 단기적 필요성에 따른 내용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내용도 적은 편이고 실용성이 다소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종종 보인다.

2000년 이후에 한류와 함께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면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재가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많은 공교육 기관이나 규모가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2.2 대만의 온라인 교재 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류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 수요의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만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학과와 대학원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 교육 센터의 한국어 강좌,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 사실 한국어 학원 등 한국어 강좌나 학습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너무 급속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시간 등의 이유로 직접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어 학습 기관에 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재 개발 초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치대학에 설치된 대만 북부지역 외국어센터에서는 전국 각 대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자습용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23개 언어에 대한 자습용 온라인 교재를 개발하여 강의를 개설하였다. 이 작업의 배경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만에서도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이 있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중시하는 특성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에 더욱 박차가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대만 현지 교원의 중국어 설명과 한국인 교원의 발음으로 총 12 과의 초급 한국어 회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에는 어휘 부분과 본문, 그리고 기본 문형을 중심으로 한 어법 설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초기 온라인 교재는 학습자가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이고 웹 기반이라기보다는 원격 강의 형식의 내용만 볼 수 있는 매우 단순한 형식이다.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질의답변 형식이나 피드백의 기능은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의 온라인 교육에서 비교적 수요가 많은 제 2 외국어인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터키어, 러시아어는 좀 더 개선된 웹 기반 방식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총 36 주(18 과)의 온라인 교재를 개발하여서 대만 각지의 대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방하여 외국어 교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제 2 외국어 학습과 학습 자원의 공유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상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센터는 2014 년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 계절 학기에 개설된 일반 외국어 강의 외에 학점을 인정하는 온라인 ‘기초 한국어’ 강의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온라인 교재는 오프라인 교육과 차별되는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멀티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각종 링크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을 모듈화하여 학습자가 언제든지 학습의 순서와 난이도를 조절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영역을 범주화하고 하위 범주의 각 내용 설명 부분을 각각의 모듈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면 각 모듈을 조합하는 웹 기능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학습자는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웹의 내용을 구성할 때, 전체적인 내용의 설계와 범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범주화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의 특징도 살려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을 20 과로 구성한다면 20 과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별 목표와 내용의 범주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단계별 설명과 연계성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현지 학습자 특성이 반영된 온라인용 한국어 교재로 개발하여 2 권까지 출판하였다. 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 한국어 콘텐츠 개발은 물론이고 웹 기반 시스템 개발, 시험 강의,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온라인 교재와 교육 과정은 일반 교양용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전문가들이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든

것이다. 특히 인터넷 환경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3. 전공용 교재 개발

보통 '교재'의 개념으로는 교육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된 하나의 가치적인 교과서(textbook)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교육 과정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로도 볼 수 있다. 교사가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해 주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전산 환경의 발달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내용들은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이 계속 새로워지고 '현재'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재는 이런 환경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 내용이 고급화되고 실용화될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만 현지에서 학습자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 편찬의 특성과 방향성을 박병선(2016)을 참고하여 제안해 보았다.

3.1 필요 사항 개관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용 교재라도 초급 단계에서는 일반 학습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으로 갈수록 어휘와 표현, 그리고 고급 어법이나 시사적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재나 부교재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법도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 개발에도 이런 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재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활용 방법부터 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사전 활용법이나 용례 찾기 등은 한국어 학습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의 경우 한국어 기사 내용에 대응하는 중국어, 영어 등의 외국어 서비스 기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활용을 통해 한국어-외국어 통번역 교육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교사의 교육 방향과 경험에 기대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체계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전제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학적 방법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에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기능 교육 이외의 한국학 교육 관련 내용의 교재가 필요하다. 특히 대만의 경우 대만 현지에서 개발된 한국 문화 방면의 교재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직접 교재를 수용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 서적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학 교육용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교재는 많지 않다. 특히 대만 학습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중국어로 된, 중화권의 관점도 반영한 교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일반적인 소개 수준의 내용이 아닌, 고급 한국어 사용 환경에 필요한 비교적 전문적 내용을 다룬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과 과정에 맞는 교재 개발이 절실하다. 현재 대만의 한국어 전공 과정 교재로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재들은 대체로 통합형 교재이고 각 기관의 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따라서 전공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경우 통합형 교재의 일부 내용만을 다루거나, 영역별로 나누어진 것이라도 전체 내용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만 현지에서 교육 과정에 적합하게 개발된 교재를 직접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해외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해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영역별, 단계별, 목적별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영역별로 체계를 잘 갖추어 교재를 만들었는데, 좀 더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 준다면, 해외에서 현지 사정에 맞춰 좋은 교재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3.2 편찬 목표 설정

국제화에 맞춘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대만의 외국어 교육 기준, 새로운 한국어 능력 시험 체제, 중국의 언어 전공 교육 품질 국가 표준과 한국어 전공 4-8 급 시험(四八級考試), 유럽 공통 참조 기준 등 여러 언어 교육 평가 기준표를 참고해 각 등급별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질과 탄탄한 한국어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어문 전공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며, 관련 전공 지식을 마스터하고 중화문화의 전통 사상, 국제화 및 다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목적에 맞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으며, 그 목표가 교육의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동기과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한국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응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지식학습, 언어기능발전, 문화 이해, 학습전략활용 등을 결합하며, 담화 중 문화 요소를 접목시키고 학생의 다문화 사고 능력 배양과 언어 문화 교류, 문화 충격과 언어 지식 학습을 서로 접목시키며,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고 또 한국어로 중국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재는 국제화에 맞추어, 표준 기본 이념과 목표를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재의 내용은 각 등급의 능력 배양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학습량과 난이도에 맞추어 집필해야 한다.

셋째, 교재는 주제 중심, 실제 활용을 중점으로 전체적인 교재의 학습단원을 설계해야 한다. 활동은 수업교육의 기본형식과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각 등급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활동 설계는 학생들의 실제 언어 실행 활동을 근거로 해야 하며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언어 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실제 언어 자료를 채택하여 학생들의 지식 성장과 생활 체험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담화를 설정하며 언어 스타일의 다양성과 생동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언어 학습을 통해 여러 지식과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사회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에 주의하며, 동시에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언어학습의 객관적인 규율을 따르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쉬운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원칙을 따르며 나선 형식으로 확장해 가야한다.

여섯번째, 교재 편찬은 개방성을 띠며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인도하며, 스스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연습 부분은 학생들에게 임무를 주어 완성 시키도록 설계해야 하며, 임무 수행 과정중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일곱번째, 교재는 정보 기술이 교육 중에 응용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 디지털화의 교육 방식을 수업에 접목시키며, 적절한 언어 테스트 시스템과 인터넷 교육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학습-테스트-평가” 의 학습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3.3 교육 방식 및 교육 활동 목표

의사소통 중심 교육법과 임무수행 교육법을 주요 교육 방법으로하여, 접촉, 모방연습, 사고 표현 이 세 단계를 통한 교육 방안을 세우려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며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최우선으로 두며 교육 환경 중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택하며, 구체적인 상황속에서의 의사소통에 집중하며, 의사소통 활동과 문법 교육과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설정하며 문화 배경과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여 사고 능력을 이끌어 낸다.

첫째, 실제 담화에 근거한 활동을 설계한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정보를 추출, 개괄, 가공하며, 분석, 이해, 정리를 통해 담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마인드맵을 사용한다.

둘째, 심화된 담화내용으로 활동을 설계한다. 담화 내용과 자신의 배경 지식, 생활 경험을 서로 연관시켜 담화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사고 능력을 키운다.

셋째, 담화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들을 설계한다.

넷째, 변화와 혁신의 활동, 실제 생활 상황을 설계하며, 학생들이 구어나 서면으로 배운 내용을 활용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한다.

3.4 고급 능력 배양

첫째, 외국어 활용 능력: 외국어 말하기와 서면어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참고 도서를 빌려 통역, 번역을 수행하며 기본적인 언어학 연구를 할 수 있다.

용례: 화제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방식(실용성 부각)을 이해한다. 사적인 장소와 공공 장소를 구분한다. 서면어와 구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실제 상황을 설계하며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면: 물건 구매 시 반품/교환/신고, 여행 중 호텔 체크인, 여행 상품 구매 방법, 교통 사고 처리 방법 등.

둘째 문학 감상 능력: 작품을 이해하고 여러 주제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용례: 초급에 짧은 우화나 단편 작품을 넣으며, 중고급에서는 급수에 상응하는 문학류 작품을 더해 문학 감상 능력을 점차 향상시킨다.

셋째, 다문화(교차문화) 능력: 대상 국가의 문화 이해를 기초로, 문화 의식 판단성을 키운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다. 문화 충격을 직시하며 효과적인 교차 문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정확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다.

용례: 아래의 단계들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1 단계, 언어 자료에 주제와 관련있는 문화 정보를 언급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거 문화, 음식 문화 등, 학생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며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한다.

2 단계, 학생들이 중한 문화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또한 문화 차이를 주의하며 문화 충격을 직시하도록 돕는다.

3 단계 문화 이해를 실제 활용에 나타나게한다. 실제 상황에서 문화 현상이 나타나도록 설계하며 또한 문화 이해를 실생활에 접목시킨다.

4 단계, 중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5 단계,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 중화 문화를 설명하며 중화문화의 감정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 문화를 이야기한다.

넷째, 사고 및 판단 능력: 학생들의 사고 논리성, 판단성, 창의성 등 방면의 수준과 특징을 반영한다. 학생들이 진리와 공정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근거, 개념, 방법, 기준, 배경 등에 대해 논술과 분석, 평가, 추론, 설명 등을 할 수 있다. 사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되 기존의 관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론은 실제 범위안에서 도출하도록 한다.

용례: 언어 자료나 연습에서 논쟁성이 있는 주제를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제인간, 안락사, 인간과 기계의 대결, 버스 노약자석, 어른 생신 때 선물이 나오지 아니며 돈이 나오지 등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말이나 글로)을 전달하거나 그룹별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신의 학습 상황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학습 모임을 만들며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며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용례: 각 과에 도입부분(문제 위주)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수업 전 미리 예습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등의 기술 수단을 통해 적합한 소재를 찾아 수업시간에 계획을 발표한다. 또 그룹별 연습에서 학생 스스로 그룹 안에서 업무 분담 계획을 세우며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여섯 째, 실천 능력: 기능을 마스터하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배운다. 배운 이론과 기능을 활용해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본적인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실천과 계획, 그리고 임수를 수행할 수 있다. 부담과 압박감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4. 마무리

62 년의 유구한 한국학 교육 역사를 가진 대만은, 뜨거운 한류 열기와 함께 다양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열기에 부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의 한국학 전공 교육 기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교재 개발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이미 62 년에 이르는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있고, 그 동안의 계속된 교재 개발과 교육 자료 개발에 의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긴 하지만 60 여 년 전의 등사판 교재에서 시작하여 최근

첨단 웹 기술을 활용한 교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시도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류와 협조가 꼭 필요한 형편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역사와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대만 현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현재 대만에서도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많은 결과들이 한국어 교재 개발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79), 한국어문법, 국립정치대학.
-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아영(2012), "교사 전문성 핵심 요인으로서의 교사효능감:", 교육심리연구 26-1, 한국교육심리학회, 63-84 쪽
- 박병선(2014), "대만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온라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25-42 쪽.
- 박병선(2016),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원 실태와 전문성 제고 방안", 국제한국어교육 2-1,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129-163 쪽.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14-3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88 쪽.
- 박영순(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방성원(2015),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44 차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45 쪽
- 안은희(2006), "다언어 학습 시스템을 통한 웹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동경외국대학 [TUFS 언어모듈]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7-181 쪽.
- 증천부(2000),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7, 국어교육연구소, 195-220 쪽.
- 진경지(2016), "臺灣高中第二外語的實施現況與課題(대만의 고등학교 제 2 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과 과제)", 대만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6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77-592 쪽.
- 채련강(2003),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안"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7-21 쪽.
- 한종임(2006),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CMC 와 웹기반 학습저작도구 활용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6 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33-147 쪽.
- 허용 외(2005), 개정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